

주일가정예배

[신년주일]

2023년 1월 1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4, 10)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시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2023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첫 주일 예배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2장 다같이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되게 하소서
3. 한번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히브리서 10장 22절 인도자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설 교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새로운 해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22

2023년 표어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뛰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로 이끄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10:19).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운 일이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20절). 당신은 왜 살 길을 놓아두고, 죽을 길로 가려 하는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열린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 속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도 효력 있는 사건임을 인식하라. 그 길로 혹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15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기자는 3가지 동사로 호소한다. ① 나아가라 ② 굳게 잡으라 ③ 격려하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촉구한다. ▶물론 일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22절). 우리의 감정, 지식, 의지에 그 피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갈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22절). “참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눅7:9). 백부장은 사람을 수단시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많은 선행을 한 사람으로서, 타민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7:6)라고 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약하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이타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다. 사랑과 선행은 교회 안에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believing) 외에 속함(belonging)도 필수적이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는 모임, 교제, 나눔, 기도, 전도가 활발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나눔’의 중요성은 학습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매일 정오에 <정오의 샘>을 유튜브로 방영하는데 이는 나눔과 적용을 통해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모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험은 모임을 포기하는 습관이다. 당대에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나 핍박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분주함과 욕심과 게으름과 이기주의 때문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준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서로의 차이보다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 ②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③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④ 험담을 귀담아듣지 말라 ⑤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